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실천과의 연관성

송귀숙 · 류다영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practice in high school students

Kwui-Sook Song · Da-Young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Received : 17 January, 2014
Revised : 25 February, 2014
Accepted : 26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Kwui-Sook S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Dehakgil 25, Hongseong-eup Hongseong-gun

Chungnam, 350-702 Korea.

Tel : +82-41-630-5328

+82-10-8731-9814

Fax : +82-41-630-5176

E-mail : sk7664@naver.com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oral health practice and to provide the right method of oral health maintenance.

Methods : The subjects were 307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cheongnam-do.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from May 13 to 28, 2013. The questionnaire included lif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practic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Results : A frequent visit to dental clinic improved the quality of oral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by way of toothbrushing, use of dental hygiene devices, and diet control.

Conclusions : It is very important to practice continuing oral health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by dental hygienists.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 life satisfaction, oral health practice

색인 : 고등학생, 구강건강실천, 삶의 만족도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함께 아동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생활습관과 건강 및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발달되고 성인기 이후의 건강생활에 근원이 되는 시기이다^{1,2)}. 청소년기의 구강건강관리 습관은 일생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습관은 부모가 되고 사회구성원이 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³⁾.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영구치우식경험

자율이 10세는 46.2%, 12세는 60.5%, 15세는 74.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치주조직전전자율도 12세에서 47.8%, 15세에서 40.1%로 연령증가에 따라 치주병의 이환율도 증가하고 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은 치아발거의 주 원인으로 많은 치과진료를 필요로 하며 한번 발생되면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⁵⁾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구강보건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들이 구강건강을 합리적이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과도한 학업수행, 시험, 대학입시 등에 대한 압박감의 결과 사회적, 심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본 연구는 2011년도 혜전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6,7)}.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적 요소로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고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구강건강의 관점에서 구강질환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구강질환의 예방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⁸⁾. 따라서 이시기에 구강건강실천정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구강건강실천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구강건강실천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실천과 관련된 연구들은 구강건강증진행위^{9,11)}와 인식도^{5,12)}, 지식¹³⁾에 관한 내용들을 대부분 다루었으며, 삶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실천과의 관련연구는 류 등¹⁴⁾이 보고하였을 뿐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에서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정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구강건강습관형성을 유도하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3년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충청남도에 소재한 3개의 고등학교를 연구자가 편의추출하여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그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36명을 제외한 총 307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구강건강실천 문항은 강¹⁵⁾과 송¹⁶⁾의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였고, 삶의 만족도 문항은 유¹⁷⁾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구강건강실천 12문항, 삶의 만족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실천의 하위영역으로는 치과방문 2문항, 칫솔질 3문항, 구강위생용품 4문항, 식이습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강건강실천은 0.728, 삶의 만족도는 0.887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실천 정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 정도는 t-검정과 One-way ANOVA분석, Tukey의 사후검정법을 실시하였다. 한 달 용돈에서는 6-8만원 미만, 8-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에서 빈도가 낮아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규성을 만족시켰다. 삶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실천간의 상관관계를 보기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71.3%, 여학생이 28.7%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64.2%, 2학년이 35.8%이었다. 학교유형은 인문계가 79.8%, 실업계가 20.2%이었고, 학교성적은 중위권이 63.5%로 가장 높았고, 한 달 용돈은 4-6만원 미만이 34.9%, 2-4만원 미만이 27.4%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19	71.3
	Female	88	28.7
Grade	1 grade	197	64.2
	2 grade	110	35.8
School type	Academic high school	245	79.8
	Vocational high school	62	20.1
School record	High	55	17.9
	Medium	195	63.5
	Low	57	18.6
A month pocket money (won)	<20,000	47	15.3
	20,000-39,999	84	27.4
	40,000-59,999	107	34.9
	60,000-79,999	24	7.8
	80,000-99,999	21	6.8
	100,000≤	24	7.8
Total		307	100.0

2. 구강건강실천 정도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실천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치과방문이 2.65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구강위생용품

과 식이습관이 3.41점, 칫솔질이 3.66점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Table 2. Oral health practices of subject

Oral health practices	Mean	SD
Dental visit	2.65	1.02
Toothbrushing	3.66	0.71
Oral hygiene devices	3.41	0.64
Diet control	3.41	0.69
Total	3.35	0.52

3. 삶의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나는 행복하다'가 3.59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나는 인생이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가 3.8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3).

Table 3. Life satisfaction

Questions	Mean	SD
I am happy	3.59	1.02
I am satisfied with my present life	3.57	1.05
I believe that life is worth the living	3.82	1.08
Total	3.66	0.95

4. 항목별 구강건강실천 정도

연구대상자의 항목별 구강건강실천을 살펴보면 치과방문에서는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는다'가 2.41점, '치아가 아프면 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가 2.9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칫솔질에서는 '칫솔질 할 때 잇몸과 혀도 닦는다'가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한다'가 3.49점으로 가장 낮았다. 구강위생용품에서는 '칫솔 머리가 위로 향하게 보관한다'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실 등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한다'가 2.4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식이습관에서는 '청정식품을 많이 먹는다'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단 음식을 간식으로 먹지 않는다'가 3.12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 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을 살펴보면 치과방문은 학교유형에서 인문계가 2.74점으로 실업계

2.31점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칫솔질은 성별에서 여학생이 3.85점으로 남학생 3.59점보다 높았고, 학년에서도 2학년이 3.82점으로 1학년이 3.57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교유형에 따라 인문계가 3.74점, 실업계가 3.3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학교성적에서는 상위권이 3.89점으로 중위권 3.64점과 하위권 3.51점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구강위생용품은 학교유형에서 인문계가 3.47점으로 실업계 3.21점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식이습관은 성별에서 남학생이 3.46점, 여학생이 3.29점으로 나타났고, 학교유형에서 인문계가 3.46점, 실업계가 3.25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5).

6. 삶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실천 요인의 상관관계

삶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실천 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칫솔질($r=0.211$), 구강위생용품($r=0.193$), 식이습관($r=0.234$)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칫솔질을 잘하였으며, 구강위생용품 이용도가 높고 올바른 식이습관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칫솔질과 구강위생용품, 구강위생용품과 식이습관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총괄 및 고안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정신 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¹⁸⁾로, 건강의 필수적 요소이고 구강건강이 확보되지 않고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게 하였다¹⁴⁾. 특히, 고등학생은 영구치가 거의 맹출 된 상태로 건강한 구강 상태 유지를 위하여 치아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강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구강건강행위의 수정이 중요하다^{9,18)}.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중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실천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고등학생이 올바른 구강건강습관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실천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식이습관이 3.41점으로 황과 한⁹⁾의 구강영양행위 3.20점과 비슷하였으나 김과 김¹⁹⁾의 식이습관 3.82점보다 낮게 조사되었

Table 4. Oral health practices for each item

Oral health practices	Questions	Mean	SD
Dental visit	I receive treatment at a dental clinic immediately when I have a toothache.	2.90	1.16
	I get a dental checkup on a regular basis.	2.41	1.17
Toothbrushing	I brush my gums and tongue as well when I brush my teeth.	3.89	0.97
	I brush my teeth thoroughly by turning the toothbrush around.	3.61	0.95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or more a day.	3.49	1.01
Oral hygiene devices	I keep my toothbrush with the head up.	4.06	1.03
	I use a toothbrush that is as large as one or two molar of my teeth.	3.67	0.96
	I change my toothbrush before the bristles of it are bent sideways.	3.44	1.06
	I use oral hygiene devices such as dental floss.	2.48	1.09
Diet control	I eat a lot of detergent food.	3.67	0.93
	I use both sides of teeth evenly to chew food well.	3.45	0.99
	I don't eat sweets between meals.	3.12	1.05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practices

Characteristics	Divisions	Dental visit	Toothbrushing	Oral hygiene devices	Diet contro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2.65±1.01	3.59±0.74	3.38±0.67	3.46±3.69
	Female	2.66±1.05	3.85±0.61	3.49±0.54	3.29±0.67
	t or F(p)	-0.127(0.899)	-3.194(0.002)	-1.411(0.159)	1.996(0.047)
Grade	1 grade	2.60±0.96	3.57±0.72	3.41±0.60	3.42±0.66
	2 grade	2.75±1.11	3.82±0.68	3.40±0.69	3.40±0.74
	t or F(p)	-1.188(0.236)	-2.954(0.003)	0.188(0.851)	0.280(0.779)
School type	Academic high school	2.74±1.05	3.74±0.67	3.47±0.61	3.46±0.66
	Vocational high school	2.31±0.81	3.34±0.77	3.21±0.68	3.25±0.76
	t or F(p)	3.549(0.001)	3.778(0.000)	2.919(0.004)	2.087(0.038)
School record	High	2.66±1.02	3.89±0.64 ^a	3.50±0.69	3.48±0.74
	Medium	2.63±1.00	3.64±0.71 ^b	3.41±0.63	3.41±0.64
	Low	2.73±1.10	3.51±0.73 ^b	3.35±0.59	3.37±0.79
	t or F(p)	0.200(0.819)	4.314(0.014)	0.829(0.437)	1.466(0.201)
A month pocket money	<20,000 won	2.74±1.08	3.74±0.74	3.29±0.70	3.52±0.72
	20,000-39,999	2.83±1.07	3.73±0.71	3.47±0.57	3.55±0.76
	40,000-59,999	2.62±0.90	3.55±0.68	3.44±0.62	3.33±0.62
	60,000-79,999	2.44±1.16	3.76±0.59	3.52±0.57	3.32±0.82
	80,000-99,999	2.29±0.97	3.52±0.87	3.43±0.75	3.33±0.63
	100,000 won≤	2.54±1.06	3.78±0.76	3.21±0.73	3.30±0.56
	t or F(p)	1.418(0.218)	1.134(0.342)	1.204(0.307)	1.466(0.201)

* by t-test or One way ANOVA test at $\alpha = 0.05$

^{a,b}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Tukey test.

Table 6. Life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practices

Oral health practices	Life satisfaction	Dental visit	Tooth-brushing	Oral hygiene devices	Diet control
Life satisfaction	1				
Dental visit	0.101	1			
Toothbrushing	0.211 ^{**}	0.251 ^{**}	1		
Oral hygiene devices	0.193 [*]	0.232 ^{**}	0.422 ^{**}	1	
Diet control	0.234 ^{**}	0.270 ^{**}	0.336 ^{**}	0.449 ^{**}	1

* p<0.05, ** p<0.001 by Person's Correlation.

다. 칫솔질은 3.66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송¹⁶⁾의 연구에서 칫솔질이 3.65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한다'가 3.71점으로 나온 황과 한⁹⁾의 연구와도 결과가 비슷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항목별 구강건강실천을 살펴보면 치과방문에서는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는다'가 2.41점, '치아가 아프면 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가 2.90점으로 '6개월에 한번 씩 치과에 방문한다'가 2.77점, '치아나 잇몸이 아픈 경우 미루지 않고 치과에 방문한다'가 3.28점으로 나온 송¹⁶⁾의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치과방문에 대한 실천정도가 2.65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이는 예방에 대한 인식부족과 질환이 심해질 때까지 비교적 동통이나 불편감이 없어서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¹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1차 예방의 중요성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위생용품에서는 '칫솔 머리가 위로 향하게 보관한다'가 4.06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치실 등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한다'가 2.48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송¹⁶⁾의 연구에서도 '치간칫솔을 사용한다'가 2.40점, '치실을 사용한다'가 2.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²⁰⁾의 연구에서 치실은 46.5%, 치간칫솔은 33.5%, 혀크리너는 42.4%, 전동칫솔은 92.4%, 양치용액은 79.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실은 21.0%, 치간칫솔은 9.8%, 혀크리너는 11.6%, 전동칫솔은 25.0%, 양치용액은 33.0%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구강보건교육에서 지속적인 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의 기회제공이 절실하며 반복적인 실습교육을 통한 습관형성이 필요하다. 식이습관에서는 '청정식품을 많이 먹는다'가 3.6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단 음식을 간식으로 먹지 않는다'가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황과 한⁹⁾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다'가 3.61점,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가 2.76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임 등²¹⁾은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식습관 평가가

좋다고 하였고, 김²²⁾은 라면과 햄버거, 단음식의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여 식습관과 신체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을 살펴보면 학교유형에 따라 치과방문(p<0.01), 칫솔질(p<0.001), 구강위생용품(p<0.01), 식이습관(p<0.05)에서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전⁵⁾은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관심도와 인지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 요인 중 칫솔질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기적인 치과방문이 2.69점, 구강위생용품이 2.12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강한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법으로 칫솔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 등²³⁾은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나쁜 구강건강행태를 보이고 계열에 따라 칫솔질 실천율 등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 등²⁴⁾은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들의 55.9%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 없다고 하였고, 하루의 칫솔질 횟수에서 2회 36.3%, 3회 15.3%로 조사되었다. 조 등²⁵⁾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수록 구강건강지식도, 구강건강행위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삶의 만족도와 구강건강실천 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치과방문은 r=0.211, 구강위생용품은 r=0.193, 식이습관은 r=0.234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실천도가 높았다. 또한 칫솔질과 구강위생용품, 구강위생용품과 식이습관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류 등¹⁴⁾의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실천과 가장 높은 요인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선별척도(AMPQ)와 구강보건지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구강건강실천을 위한 접근에 있어 최근의 건강증진분야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으며¹⁴⁾ 구강건강이 건강증진의 하나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 고등학생들의 구강건강실천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 구강건강실천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구강건강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으며, 대상학생에 대한 폭을 넓혀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의 형성을 위해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 정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습관을 유도하고 실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3년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충청남도에 소재한 3개의 고등학교 1, 2학년 30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라 치과방문은 학교유형에서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았고($p < 0.01$), 칫솔질은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학교유형에서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학교성적에서 상위권이 중위권과 하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5$, $p < 0.01$, $p < 0.001$). 구강위생용품은 학교유형에 따라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았고($p < 0.01$), 식이습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5$).
2. 삶의 만족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칫솔질, 구강위생용품, 식이습관 등의 구강건강실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p < 0.001$).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보다 구강건강실천정도가 낮게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

1. Choi J, Kim MY. Factors influencing health risk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9; 15(2): 182-9.
2. Broadbent JM, Thomson WM, Poulton R. Oral health beliefs adolescence and oral health in young adulthood. *J Dent Res* 2006; 85(4): 339-43.
3. Goo YM, Kim YH, Kim IS, Kim HJ, Park YN, Park IS, et al. Oral health education. 2nd ed. Seoul: Komoonasa; 2008: 17.
4.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2010(year). Seoul: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2010.
5. Lee HO, Chun JY. Influence of subjective oral health interest and recognition in academic boys' high school students upon oral health practice in some regions. *J Dent Hyg Sci* 2011; 11(1): 1-6.
6. Jang HJ.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career stress, anger expression styl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 Par Edu* 2012; 9(1): 75-93.
7. Lee BY. A study on academic stress and stress with high-school admission among middle schoolers[Master's thesis]. Kangwon-do: Univ. of Kangwon, 2007.
8. Lee YS. The effect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practice on the DMFT and the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Master's thesis]. Gyeongsangnam-do: Univ. of Inje, 2010.
9. Hwang JM, Han JH. A study on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igh schoolers in a part. *J Dent Hyg Sci* 2009; 9(2): 197-202.
10. Yu JS, Kim HH, Han YK, Kim SH. A research on perception of oral health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ome areas. *J Dent Hyg Sci* 2010; 10(5): 411-6.
11. Yu MS, Goo KM, Kim JS. A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Jeolla-bukdo. *J Dent Hyg Sci* 2009; 9(2): 225-30.
12. Ryu KJ. A research on recognition of oral health care among some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5): 925-33.
13. Lee SM, Kim EJ, Lee DH. Relationship between oral-related knowledge and OHIP in some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5): 877-85.
14. Yoo JS, Han HJ, Yoo EM.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AMPQ and life satisfaction,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in some high school students. *J Dent Hyg Sci* 2012; 12(4): 422-8.
15. Kang HS. Relationships between dietary behaviors and oral health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 area[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Myongji, 2012.
16. Song J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oral health beliefs to oral

- health practice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part areas, *J Dent Hyg Sci* 2012; 12(3): 227-33.
17. Yu JR,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tress variables & coping strategies on adolescents' quality of life[Master' s thesis]. Cheongju: Univ. of Chungbuk, 2004.
18. Kang BW, Kang JO, Kwak JS, Gwon SJ, Gwon HS, Gwon HM, et al, Public oral health, 3rd ed, Seoul: Komoonso., 2013: 8.
19. Kim SK, Kim Y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dental health condition of primary school children, *J Dent Hyg Sci* 2007; 7(4): 271-4.
20. Kim SJ, A survey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s behavior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in Jeolla-bukdo, *J Dent Hyg Sci* 2009; 9(4): 387-95.
21. Lim KO, Woo SH, Kwak JS, Impact of eating behavior on dietary habits and subjective oral health evalua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4): 441-51.
22. Kim YS, The effect of food behavior and nutrition knowledge on health cond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school studens in Gyeonggi province[Master' s thesis]. Seoul: Univ. of Konkuk, 2008.
23. Kim SI, Lee HR, Ma DS, Park DY, Jung SH, The differences of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by type of school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Gangneung city,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2; 36(4): 309-14.
24. Kim HH, Yu JY, Han YK,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gingivitis and actual condition of oral health care in some vocational high school boy students, *J Dent Hyg Sci* 2009; 9(5): 513-8.
25. Cho MS, Park MK, Jang KA, Influences of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4): 639-44.

